만나와 똥떡 중 뭐 먹고살래?

(에스겔 4:1~17)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되
10.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1. 물도 육분의 일 힌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12.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만나와 똥떡 중 뭐 먹고살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만나와 똥떡 중 뭐 먹고살래'
옛날부터 아이가 똥통에 빠지면 일찍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인 화장실의 구조상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은 똥통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이유를 뒷간 귀신이 심통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똥통에 빠지면 귀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고사떡이 바로 똥떡입니다. 똥통에 바치는 고사였기 때문에 밀가루든 녹말가루든 아무 가루나 써서 떡을 빚었습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도 정해져있지 않아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을 접시에 담아 뒷간 문 앞에 놓고 절을 하며 "뒷간 귀신님! 뒷간 귀신님! 이 맛있는 똥떡 드시고 화를 푸셔서 똥통에 빠진 우리 막둥이 아무 탈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뒷간 귀신이 화가 풀려서 아이에게 임할 액운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나서 아이의 나이 숫자만큼 떡을 떼어서 아이에게도 먹게 했고, 또 떡이 남으면 온 동네에 이 똥떡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똥통에 빠진

김에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똥떡은 이름에 똥자가 붙었을 뿐이지 실제 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똥떡은 정말로 똥과 상관이 있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똥을 재료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분 불을 피워 떡을 구워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똥으로 구워진 떡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인분 냄새가 지독하게 배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차마 따르질 못하고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부정함이란 단순히 에스겔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고, 하나님을 현실로서 가질 수도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듯 한 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에스겔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셔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로부터 근동지역에서는 소나 낙타의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으니 다소나마 조건이 완화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기간이 무려 사백삼십 일에 이르렀습니다. 5~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 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삼백구십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한 것이었고, 나머지 사십 일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로도 지속되었던 남 왕국 유다의 죄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에스겔은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게 되었으나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분에 구운 떡은 선민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인분에 구운 떡을 먹은 셈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2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러한 행위 예언을 위해서 삼백구십 일에 더한 사십 일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10절을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 물도 육분의 일 힌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20세겔은 약 230그램에 해당됩니다. 또 물 육분의 일 힌은 약 0.6리터입니다. 하루를 고작 230그램의 밀가루와 0.6리터의 물만으로 살아야 했으니 상당한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또 230그램의 식재료도 전부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밀가루는 부유한 계층의 식량이었습니다. 9절에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라고

하신대로 보리 콩 팥 조 귀리 같은 것들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굶어 죽기 직전의 핍절한 상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의 죄악의 내용을 드러내라는 의미였습니다. 선민들이 몇 백 년 동안 지어온 죄악을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풍요와 다산의 추구로 인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결과는 오히려 핍절한 삶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고 번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다면 선민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 결과는 복지의 삶이 아닌 오히려 하루 230그램의 거친 곡식으로 연명해야만 하는 핍절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민들의 삶이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때보다도 더 열악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보다 복지에서의 삶이 더욱 가난해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요와 다산의 추구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부흥을 꿈꾸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결과가 인분으로 구운 떡과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배려하셔서 쇠똥으로 바꾸어주셨지만 그 의미가 인분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12~13을 보면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상징합니다. 선민들이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진영 안에서는 볼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고 일을 보고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부정한 인분으로 떡을 구워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에스겔에서 지시하신 사항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많이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면 이제 생각과 판단에 따라 실제로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인 셈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는 것 외에 마음에 담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배설물을 연료로 삼아 몸을 움직이기에 똥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자면 똥자가 붙을 대상이 한 둘이 아닙니다. 자녀를 일류대학에 들여보내야겠다고 여기는 마음이 똥입니다. 학생 본인이 철이 들어서 출세하기 위해 일류대학을 들어가겠다고 여기는 마음도 똥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본래 마음에 담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똥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똥떡을 먹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똥기운 그만 써라"고 하시며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똥기운 써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똥대학입니다. 마음에서 명예를 얻고자하여 노력해서 결국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예란 것은 인분으로 구운 떡이고 똥기운을 쓴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하나로 재벌이 되었어도 그것은 결국 똥재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최우선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강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는 것도 둘째 문제입니다. 우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가서 일을 해서 주어지는 돈이라면 똥이 아니게 됩니다. 하늘기운으로 일해서 주어진 돈이기에 똥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BC.593년에 소명을 받고 예언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BC.586년까지 7년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7년간 행해지는 예언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행해지는 예언이 다릅니다.
BC.605년에 1차포로 이송이 이루어지고 에스겔은 BC.597년에 2차포로 이송 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잡혀간 사람들은 아직도 건재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며 곧 돌아가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건재함을 하나님이 이세상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는 보장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땅으로부터 어려움이 없는 땅으로 옮겨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에게 에스겔은 7년간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정짓고 확정짓는 예언을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방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유다가 완전히 망한 뒤에는 예언의 내용이 바뀌어서 회복의 소망을 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고자 합니다. 이때에 세상을 향한다면 닥치는 대로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세상 것들은 말 그대로 똥이 되어버립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처럼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겨서 간직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모두 똥이 되어버립니다. 배설물임을 알았다면 빨리 빼내야 합니다.

성전은 상번제를 통해 세상 즉 똥을 담은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땅의 것을 담았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담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날개 빠진 독수리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뱀이 땅에 배를 붙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선민들의 마음은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하늘로 가는 길을 터주는 곳이 아니라 땅에서 더 나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할 것임을 예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선민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땅에 붙이고 뱀처럼 살아가는 삶은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에 담으면 똥이 됩니다. 빨리 빼내야만 하는 배설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연료 삼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설령 대통령이 되어도 똥대통령입니다. 마음에 돈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똥부자입니다. 일류대학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똥대학생이 됩니다. 이것이 선민의 죄악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주석가들을 참으로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4~6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 내가 그들의 범죄 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똥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삼백구십 일을 좌로 눕고,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십 일을 우로 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삼백구십 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BC.930년에 분열됩니다.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분리되는데 이때부터 에스겔의 시대까지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삼백구십 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사십 일을 우로 누우라 하셨는데 유다의 죄도 고작 사십 년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분리

되고 202년 만인 BC.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왕국 유다는 그 동안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북 왕국 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뒤인 BC.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의 죄로 사십 년을 언급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삼백구십 년과 사십 년이라는 햇수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이 잡혀 왔을 때부터 아니면 BC.586년에 남 왕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BC.537년까지를 생각해도 4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햇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시간의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숫자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바벨론으로 흘러들어왔든지 남 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십이라는 숫자를 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십 년간의 광야생활입니다. 또 어디에도 일치되지 않는 삼백구십 년에 이 사십 년을 더하면 사백삼십 년이 나옵니다. 사백삼십 년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 삼백구십 년은 에스겔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다윗의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사십이라는 숫자는 광야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삼백구십 년과 사십 년이 더해진 사백삼십 년은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을 가리키는 것이며, 삼백구십 년은 다윗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죄의 깊이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생활의 특징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돈이나 맛있는 떡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 품는다고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모든 의욕과 욕구와 노력을 무산시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빨리 사막을 뚫고 나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욕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만 한다면 시원한 음료에 대한 기대는 아예 갖지도 못할 것입니다.

선민들의 사십 년 광야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백삼십 년 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다소나마 세상에서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먹고 살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 이 세상적인 보장이 전혀 없는 곳이었고, 성취를 위한 의욕과 욕구를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한 끼 밥을 먹을 때에도 옷을 입으려도 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것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은행에 십억 원을 넣어두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연금을 받거나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

나 광야에서 선민들은 그 어떤 세상적인 보장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했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의 삶을 복지로 옮겨온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십억 짜리 통장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제 십억을 보장으로 든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모아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로 치자면 십억 짜리 통장을 마음에서 보장으로 삼겠다고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는 순간 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죄악의 내용입니다.

십억 짜리 통장이 생겼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을 담고 십억은 마음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억은 내 삶을 보장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국기운에 의해서 쓰임새가 결정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억을 신과 같이 여겨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똥이 되어버립니다. 그 십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인분으로 구워 먹어야만 하는 똥떡이 되어버리고 하려는 모든 일에는 똥자가 붙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사십 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선민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던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설령 복지에 살면서 기름진 밭이 있고 수목과 물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할지도 그것들을 단 하나도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마음에 담아버리거나 없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소원하며 마음에 담는다면 다 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똥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마주할 때에 자녀를 마음에 담으면 똥이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도 똥말이 되고, 자녀에게 손을 대면 똥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도 똥가르침이 됩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으면 다 똥이 되기 때문에 똥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들도 똥이 되지 않습니다. 바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다 적합한 용도와 쓰임새를 가지고 사용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는 순간 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다시 말해 똥기운으로 살지 말고 천국기운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

다. 똥떡을 먹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담은 채로 삶을 출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육신은 원죄로 인해 계속해서 세상을 담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생활화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세상이 담긴 마음을 죽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똥기운은 끝나고 마음은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느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세상에서 꿈꾸던 일들을 모두 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에스겔이 천국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보석의 광채와 무지개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음을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어떤 바람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죄의 체질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은 자로 여기기를 반복한다면 어느덧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똥기운이 사라지고 천국기운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기운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똥기운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은 똥자가 붙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단절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똥기운이 완전히 끊어지고 천국기운으로 지배되는 청아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배설물을 담고 사는 똥기운의 삶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해 주셔서 천국기운으로 가득 찬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